행복한 책 읽기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刊〉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었다. 여의치 않은 글쓰기에, 지지부진해진 일상이 쓸쓸해질 때면 조르바를 만난다.

국내 현역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시인 첫 번째가 '백석'인 것처럼, 소설가들을 가장 많이 움직인 소설 속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조르바'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남들도 다 하는 '조르바' 얘기를 하려니 머쓱하다. 그의 깊이를 분석해내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려는 무모한 짓을 할 의도는 없다.

'조르바'는 자유인이다.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을 위로받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와는 달리, 조르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언행을 구사한다. 죽은 지식인이 아닌 살아있는 자유인이다.

조르바처럼 살았던 인물은 숱한 작품에도 등장한다. 위화의 '허삼관'이 그랬고 이문구의 친구 '유재필'도 분방하기만 했다. 성석제의 '조동관', 고은의 '머슴 대길이', 연암의 '광문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 같은 이들도, 상식과 규범으로 설명할 수 없는 통찰력과 파격, 먹물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저항과 자유의지를 펼치며 세상을 조롱했다.

적이 있는가.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사고가 어지러우며 일탈성이 강함'이라고 적혀보지도 못했고, 조르바처럼 원초적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본 적도 없다.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눈치만을 살폈다. 과거로부터의 낙인, 이념의 족쇄, 국가와 제도의 무게, 직장과 조직의 속박에 얽매여 살아왔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불안하다. 만족을 모르는 현실은 풍요로운 삶과는 반대다. 하지만 조르바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현실에서 조르바처럼 살기

그 순간에만 충실할 뿐. 질그릇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려는데 손가락 하나가 걸린다고 잘라버린다. 얻기 위해서 싸웠고 의기양양 잘난 체 했으며 뺏기지 않으려 아등바등했던 허방다리 인생이 부끄럽다. 잔머리 지식인을 양산하는 교육체계, 길들여지고 계산된 위선이 고개를 돌린다.

그러면서도 늘 조르바를 만난다. 타성에 지친 퇴근길, 풍암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할 때 초로의 조르바가 자전거를 끌고 허청허청 지나간다. 1톤 트럭에서 궤짝을 내리며 씨익 웃는 노인네, 어느 휴일 날에는 낮술에 취한 채 공원 목조 의자에 팔자 좋게 잠들어 있기도 했다. 들여다본 그의 얼굴에 시름은 없다.

조르바에게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화덕에 불을 지피고 양고기를 구우며 포도주잔을 들고 있던 조르바가 자글자글한 주름을 만면에 퍼뜨리며 대답한다. 자고 있나? 그럼 잘 자게. 먹고 있나? 그럼 잘 먹게. 그가 연주하는 산투리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온다.

정 강 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14가지 색다른 몸짓… 뜨거워진 무대 관객 홀린다

지역 대표 공연단체 참여… 24일~7월16일 유·스퀘어문화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화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예산과 선정 단체도 해마다 늘어나 광주의 경우 2011년 8개 단체, 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개 단체 7억4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14개 단체에 모두 10억4400만원이 지원됐다.

선정된 각 단체들은 광산문예회관, 빛고을시민문화관, 남구문화관 등 각각의 거점 공연장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다.

선정 단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개별 단체 지원액으로는 액수가 가장 많다. 1년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 각 단체들도 '큰 그림'을 그리며 실험적인 시도하는 등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

죽어있던 공연장들도 재발견 됐다. 그린발레단 등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광산문예회관과 푸른연극마을과 놀이패 신명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오는 24일부터 7월16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에서 열리는 '광주 14색 페스티벌'은 지역 14개 상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다. 지난해 제주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과 교류 공연을 진행하며 사업의 외연을 넓혔던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기획이다. 크리에이티브드라마 등이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유·스퀘어문화관이 무료 대관으로 힘을 보탠 점도 눈길을 끈다.

연극 분야에서는 모두 6개 극단이 참여했다. '낭자군' 등을 무대에 올려온 아트컴퍼니원은 춤추는 돈년과 시인 두보, 화가 피카소의 숙명적 사랑을 그린 '피카소 돈년 두보'를 무대에 올리며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테네시 윌리암스의 걸작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공연한다.

극단 청춘은 임대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를 그린 '비빔밥'을, 올해 처음 상주단체로 이름을 올린 극단 시민은 '연산의 꿈'을 무대에 올린다. 푸른연극마을은 5월 광주를 그린 '한 남자'를 선보이며 놀이패 신명은 소설가 공선옥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마당극 '꽃같은 시절'로 관객들을 만난다.

음악분야에서는 강숙자오페라단의 블랙 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 성악그룹 한소리회의 '헨젤과 그레텔', 모듬북과 드럼이 어우러진 광주국악협회의 '빛고을 굿 페스티벌'이 대기중이다. 또 비발디의 '사계', 파헬벨의 '캐논' 등을 들려줄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유쾌한 콘서트'와 '선율'의 '한여름 밤의 세레나데'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서영무용단은 민요 '아리랑'이 담고 있는 감정과 상징을 '진도아리랑'의 기원설화에 접목시킨 '아리'를, 임지형&광주무용단과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가객, 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를 공연한다. 그린발레단은 발레의 탄생과 시대별 작품 감상, 발레 테크닉과 의상 변천사 등을 곁들인 '해설이 있는 발레 감상'을 진행한다.

티켓 가격 음악·무용 1만원, 연극 2만원(청소년 1만5000원).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경우 30%, 현장에서 고속·시외버스 승차권을 제시하면 20% 할인혜택을 준다. 문의 062-670-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공연일정 및 작품

작품명	공연일시	단체명	장소
빛고을 굿 페스티벌	6월24일	(사)광주국악협회	동산아트홀
Contemporary공연 '피카소 돈년 두보'	6월26일	아트컴퍼니원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	6월28일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블랙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	6월29일	강숙자오페라단	
아리	7월 1일	서영무용단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7월 3일	한소리회	
비빔밥	7월 5일	극단청춘	
Theater Healing '연산의 꿈'	7월 7일	극단시민	
광주여성필과 즐거운 만남 '유쾌한 콘서트'	7월 8일	광주여성필하모닉	금호아트홀
가객, 국창, 임방울을 노래하다	7월 9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동산아트홀
꽃 같은 시절	7월11일	놀이패신명	
해설이 있는 발레감상	7월13일	그린발레단	
한 남자	7월15일	푸른연극마을	
아르스 필하모니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한여름밤의 세레나데'	7월16일	선율	금호아트홀

'함께하는 평화' 광주국제영화제

8월29일~9월2일 메가박스광주

'휴머니티 비전' 섹션 80편 상영

2013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는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메가박스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8일 조직위 사무실에서 정동채 집행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올 영화제 주제는 '함께하는 평화'(Peace for All). 인류의 평화, 인간의 존엄을 다룬 감독을 발굴하는 '휴머니티 비전'을 비롯해 주요영화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월드비전', '패밀리 시네마' '애니메이션 시네마' 등 10개 섹션에서 8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지난해 북·중 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을 상영한 데 이어 올해도 북한 영화 상영을 기획 중이며 2011년부터 인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기여한 작품에 수여하는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도 시상한다.

영화제 홍보대사 김명진·이원종·권현상(왼쪽부터).

영화제 홍보대사인 '피스 프렌즈(Peace Friends)로는 영화배우 이원종, 탤런트 김명진, 탤런트 권현상 씨가 위촉됐다.

조직위는 내년부터 영화제 위상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공동영화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이날 정일 인천교육대 미술학과 교수인 정일 교수가 디자인한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